세계의 에이즈

유엔, 내년 6월 HIV/에이즈 특별회의 소집

제55차 유엔총회는 내년 6월에 HIV/에이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총회는 이날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악화되고 있는 HIV/에이즈의 경제-사회적 충격을 논의하면서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내년 6월25~27일에 세계 각국 정부와 비정부기구(NGO)가 참여하는 특별회의를 개최해 HIV/에이즈 퇴치를 위한 재원마련과 국제협력 방안, 백신개발과 연구, 치료약 보급 등 지구촌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연합뉴스, 11/4)

섹시스타 리키 마틴, MTV에서 에이즈 교육 프로 맡아

라틴팝의 황제 리키 마틴이 10대 청소년들에게 에이즈 위험을 알리며 안전한 성행위를 하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 에이즈의 날인 12월1일을 앞두고 리키 마틴은 에이즈 확산을 다룬 MTV 다큐멘터리 "스테잉 어라이브"를 진행하게 된다.

이 다큐멘터리는 세계 각국 6명의 에이즈 환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로이터 인터넷, 11/16)

엘튼 존, AIDS 자선기금 마련 행사에 의상 2만점 기증

영국 팝 가수인 엘튼 존이 자선행사에 자신의 의상을 무려 2만점이나 내놓았다고 한 일간지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음악 뿐 아니라 휘황찬란한 의상과 업청난 쇼핑광으로도 유명한 엘튼 존은 이번 주 런던에 임시 상점을 열고 에이즈 연구를 위한 자선 모금에 나선다고 '메일 온 선데이紙'가 전했다.

엘튼 존은 '모두 공개합니다'라는 이 행사에 은으로 된 5만 파운드짜리 정장, 50회 생일에 썼던 큰 가발, 최고 디자이너들의 의상 수천 점을 내놓을 계획이다.(로이터 인터넷, 11/27)

中, 에이즈 어떻게 감염되는지 아는 국민 3.8% 뿐

중국 전역의 도시와 시골 마을에서 3천8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인 중 HIV/AIDS가 어떻게 전염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3.8%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보건부와 인민대학이 20-64세의 사람들에게 HIV/AIDS가 혈액, 정액, 공기, 음식물, 감염자의 피부 접촉 중 무엇을 통해 감염되는 지를 물어본 결과, 3.8%만이 혈액과 정액을 통해서만 감염된다고 답했다고 중국 광명일보는 30일 전했다.

또 이들 중 45.3%는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감염 예방에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로이터 인터넷, 11/30)

"남성들의 이기적 성습관이 아내에게 에이즈를"

'남편들의 이기적이고 잘못된 성적 습관이 아내들을 에이즈의 위험에 빠뜨린다.' 일견 당연한 결론인 듯 보이는 연구결과가 최근 싱가포르 국립대 성병 치료과 연구팀에 의해 밝혀졌다고 〈더 스트레이츠 타임즈 인터랙티브 The Straits Times Interactive〉가 전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싱가포르 기혼남성 5명 중 거의 2명 꼴로 매춘여성을 찾고 있다.(세계여성, 12/14)

건전한 성문화 캠페인-대한에이즈예방협회와 협력

건강의료제품 전자상거래를 운영하고 있는 케어몰은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대한에이즈예방협회와 함께 '건전한 성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벌인다. 우리 사회의 문란한 성문화를 계도하는 이번 캠페인 기간 중 케어몰은 거리에서 올바른 성지침 자료와 콘돔 10만개를 무료배포한다.(중앙일보, 12/21)

위생업소 종사자 전염병 검진 완화

내년부터 위생업소 종사자들은 B형 간염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검사 대상 성병도 현재의 매독, 임질, 연성하감, 비임균성요도염, 성병성임파육아종, 서혜육아종 등 6종에서 매독, 임질, 연성하감, 비임균성요도염, 클라미디아감염증,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등 7종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올해 전염병예방법과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치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을 이같이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규제완화 차원에서 여관업이나 여인숙업의 여성종업원들을 정기성병검진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연합뉴스, 12/22)

에이즈 확산

중국의 HIV 보균자 전년비 37% 증가

금년 9월을 기준으로 중국의 HIV 보균자 수는 2만711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7%가 증가했다고 국영 신화사 통신이 1일 보도했다. 신화사는 보건부의 발표를 인용하여 에이즈 바이러스인 HIV 양성 반응을 나타낸 사람들 중 대다수가 20-29세 사이였다고 밝혔다.

또 HIV 양성 감염자의 72%는 정맥주사 사용자들이었고, 남자 감염자의 수가 여자의 5.2배였다.

이 수치는 중국 전문가들이 국영 언론에 밝힌 추정치와는 차이가 나는데, 이들은 중국에 약 50만명의 HIV 감염자가 있다고 말했었다.(연합뉴스, 11/1)

중남미에 에이즈 비상

중남미에도 에이즈가 만연되고 있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동성애에 솔직히 대처하고 예방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유엔의 한 고위관계자가 7일 말했다.

유엔통계에 따르면 남미와 카리브해에서는 매일 600명이 HIV에 감염되고 있으며 아이티의 경우 인구의 5.17%인 21만명이 감염돼 있다고 피오트는 밝혔다.(연합뉴스, 11/3)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 에이즈 확산 비상

카리브 해 연안 국가들에서는 정부의 무관심과 번성하는 윤락업 등으로 에이즈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리브해 연안 국가 중 가장 가난하고 에이즈 문제가 심각한 국가인 아이티의 경우 인구의 5%가 HIV 감염자이다.

인기 관광지인 바하마에서는 성인 인구의 4%가 HIV 감염자이고 또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성인 2.8%가 감염자이다.

쿠바의 전염병 담당 관리인 마누엘 샌틴 페나는 "에이즈퇴치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아직 문제를 해결할 만한 자원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모두 힘을 합쳐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로이터 인터넷, 11/14)

세계 HIV감염자 3천600만명

세계의 에이즈 바이러스(HIV) 감염자는 올해 새로 감염된 560만명을 포함, 금년말에는 총3천 6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세계보건기구(WHO)가 24일 발표했다.

WHO는 주례보고서를 통해 에이즈가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총사망자는 2천 180만명이라고 밝히고 에이즈 사망자 수는 매년 늘어 금년에는 300만명(이중 15세이하 어린이 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에이즈 사망자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52%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금년에 감염자수가 크게 늘어난 곳은 구소련 지역으로 무려 60%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연합뉴스, 11/25)

에이즈 창궐,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 중

에이즈 질병이 아시아 지역 쪽으로 옮겨오고 있다. 20여년 전에 모습을 드러낸 이 무서운 질병으로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지역이 아직까지는 아프리카의 사하라 이남 지역이지만, 아시아가 다음 지역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 바이러스가 인구가 많은 아시아 국가들로 이동하고 있음에 따라 이 지역이 향후 5년간 중대한 도전을 겪게 될 것"이라고 유엔 에이즈연구기구(UNAIDS) 의 한 관리는 말한다.

UNAIDS는 금주에 발표되는 보고서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자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연합뉴스, 12/1)

두배로 증가한 중동 에이즈 환자 수치

중동지역에서 에이즈의 확산은 동성애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지참금 문제 때문에 정상적인 결혼이 불가능해진 남성들이 동성애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 지역의 에이즈 환자가 1년 새 100% 가까이 늘어나는 등 급속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유엔에이즈위원회(UNAIDS)의 보고서에 따르면 99년에 15살부터 49살 사이 성인 감염자가 22만명 정도였던 것이 올해 말에는 새로 감염된 8만여명을 비롯해 40만명을 넘어섰다. 일부에서는 에이즈 확산은 중동사회를 파괴할 수 있는 일종의 '시한폭탄'이라고 경고한다. (한겨레신문, 12/14)

AIDS 에이즈 연구

동성 에이즈 환자들, 키스하면 피부암 걸릴 확률 높아져

키스를 통해 피부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내

용의 연구 결과가 미국서 발표돼 화제다.

특히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환자는 키스를 통해 피부암의 일종인 카포시 육종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한다. 이는 워싱턴 주립대학의 존 포크 박사팀의 연구 결과 나타난 것이다. 포크 박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헤르페스바이러스-8(HHV-8)은 어떠한 질병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AIDS 환자에게 HHV-8은 카포시 육종에 걸릴 확률을 높게 한다는 것.(연합뉴스, 11/8)

HIV 바이러스, 17세기부터 있었다

HIV 바이러스는 이미 17세기경부터 존재했다고 벨기에 학자들이 밝혔다. 벨기에의 카톨릭 대학 연구진은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를 기초로 한 새로운 연대기 산출법을 이용, HIV와 침팬지에서 발견되는 비슷한 바이러스의 연관성을 300년전까지 추적 연구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 방법을 이용해 HIV-1 그룹 M과 침팬지에서 나온 SIVcpz를 발견해냈는데, 이 두 바이러스는 약 1675년 경에 비슷한 뿌리로부터 갈라져 나온 것이라는 점을 알아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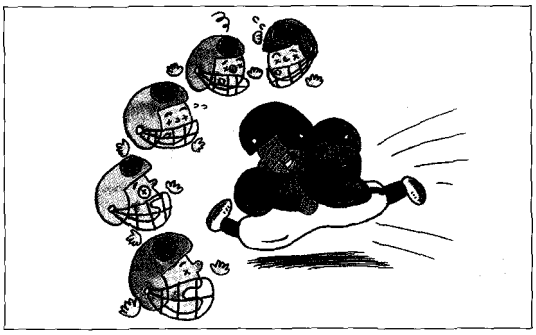
에이즈 감염 남성도 건강한 아기 낳는다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남자의 정액에서 바이러스를 제거한 뒤 이를 여성의 난자와 체외수정해서 건강한 아이를 낳게 하는 시술이 다음달 일본에서도 이뤄진다.

28일 (요미우리신문)은 니가타 대학 의학부가 후생성 에이즈연구반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 시술에는 도쿄 오기쿠보 병원과 게이오 대학 의학부 등이 이탈리아에서 이미 개발돼 활용 중인 바이러스 제거법을 한층 더 개량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며, 태아와 산모의 2차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 11/29)

국내 에이즈감염인 치료제 내성 심각-연세의대 김준명 교수 연구팀

국내 에이즈감염인의 치료제 내성이 심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세의대 감염내과 (김준명, 장경희, 홍성관)과 국립보건원 면역결핍연구실(이주실, 강춘, 김성순, 남정구)이 공동으로 실시한 항바이러스제의 내성연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뉴크레오시드 역전사효소 억제제를 과거에 전혀 투여받지 않았던 감염인에서도 이 약제에 유전형의 일차 내성을 갖는 비율이 14%, 이 약제를 투여 받았던 감염인에서는 42%로 상당히 높았다.



약제별로는 지도부딘이 29%, 라미부딘은 36%였고 단백분해효소억제제도 25%로 높았다. 김준명교수는 이 연구를 통해 "치료받은 군은 치료받지 않은 환자에 비해 3배정도로 내성률이 높았으며 앞으로 유전형 내성분석과 더불어 표현형 내성의 비교분석이 시급히 진행돼 환자치료에 응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의협신보, 12/18) Ⓐ